

與 ‘여소야대’ 절감...국민의당과 협치 나서나

김명수 인준안 통과
與, 野 비판·음소 전략 한계
한국·바른·국민의당 공조 제동
정기국회 여야 격전장 예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협치’의 과제를 다시 각인시켰다는 평가다. 이날 개표함을 열기 전까지 가결을 장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야권과의 협치가 없이는 정기국회에서의 개혁법안 및 예산 처리 과정에서 피를 말리는 상황의 반복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여야의 표 대결 상황에서 기대 이상인 160표를 확보하는데 성공, 김이수-김명수 후보자 연속 부결로 인한 사법부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여소야대의 위력을 절감한 만큼 한층 까다로워진 ‘협치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당내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몸을 더 낮추고 국민의당 등 야당과 더 고강한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현안이 닦쳐서야 야권에 음소하는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야권에 대한 비판과 반목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할 수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략적으로도 미흡하다는 것이다. 적절한 경쟁과 견제를 통한 민형의 리더십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 뿌리’를 가진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연정 수준의 협치’가 필요하며, 이번 기회에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반영하듯 민



‘안도’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오른쪽 뒷모습), 우원식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본회의의 표결 이후, “국민의 바람을 국회가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회동 등을 통해 협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승리라고 생각한다”며 “개혁과 민생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손을 굳게 잡고 협치의 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협치가 잘 이뤄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기국회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간의 피 튀기는 경쟁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호남의 지지를 두고 충돌할 수밖

에 없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협치가 자리 잡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권의 난맥상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제3당으로서의 정치적 존재감을 최대화,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의 공조는 제동이 걸렸다.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공조의 위력을 과시한 이후 열혈만이다. 이번 표결을 계기로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서 주요 현안을 놓고 민주당·국민의당, 한국당·바른정당의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졌

다. 하지만, 4당 교섭단체 체제라는 점에서 주요 현안을 두고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합종연횡 구도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편, 청와대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에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를 피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준 입법부에도 감사드리며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 데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내주 중 야당 대표와의 회동도 조율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tuim@kwangju.co.kr

野 추석 앞 ‘김영란법’ 손질 촉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28일 시행돼 1년이 다 되어 간다”면서 “그러나 추석 대목임에도 온기를 전하느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수축산물 매출이 25.8% 감소했고, 화훼의 경우에도 거래는 20%, 매출은 40% 이상 줄었다고 한다”고 설명한 뒤 “현재 3·5·10만원의 가액기준을 10·10·5만원으로 고치도록 하는 게 여론의 일반적 경향”이라며 “이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정부가 조속히 검토해줄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

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 90% 가까이(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했고, 실제로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그러나 부분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역업자나 농어민의 경제적 타격이 상당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여당 내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한 긍정적 여론에 무게를 실으면서 피해 분야의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받는 특정 산업 분야의 피해 등을 분석해 연말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김성·강진원 복당 보류

253명 심사 168명 허용...보류 83명 재심사키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계호)은 21일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복당을 신청한 김성 장흥군수, 강진원 장흥군수 등 무소속 선출직 단체장 2명에 대해 복당 보류 결정을 했다. 이날 탈당 당원 253명에 대한 복당 심사에서는 두 군수 등 83명의 복당이 보류됐다. 전남도당은 “선출직 단체장의 복당 결정에는 신중함이 더 요구됨에 따라 향후 지역 여론 등을 살펴보고 적격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 당시 대규모 탈당 사태를 빚은 강진 지역의 복당신청자 71명, 위원장 공석으로 사고 지역위원회로 분류된 나주의 복당신청자 8명, 전 지방의원 2명이 보류 명단에 포함됐다. 천순애 전 여수시의원과 장재호 전 진도군의원 등 2명은 선출직 당원 출신으로 국민의당에 입당해 종대한 해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돼 복당이 불허됐다. 나머지 일반 탈당자 168명에 대해서는 복당 허용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 관계자는 “보류 처분을 받은 복당 신청자들에게 대해서는 지역 여론 청취, 서면 증빙자료 보완 등 과정을 거쳐 다음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 중 15명은 민주당, 2명은 국민의당, 5명은 무소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에 명운...뼈 깎는 쇠신 필요”

제2차당위 첫 회의
국민의당은 21일 국회에서 제2차당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당 혁신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제2차당위는 당 혁신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만든 기구로,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독한 당 쇠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인재영입위원장을 직접 맡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뼈를 깎는 반성과 혼신을 다하는 혁신으로 승리의 길을 닦는 게 당대위의 임무이고 그것이 지방선거 승리를 통한

국민의당의 활로”라며 “국민이 다시 국민의당에 신뢰를 보내주시 때까지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제2차당위 공동위원장인 오승훈 전남대 교수는 “국민의당은 지지율의 감옥에 갇힌 상태”라면서 “혁신이 아니고서는 이 지지율 감옥을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일과 ‘당이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제2차당위가 시급하게 해야 할 주요한 과제”라며 “제2차당위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국민의당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목표를 위해 당을 혁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현재는 지지율이 바닥이지만,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며 “새로운 지도부 하에서 진행되는 제2차당위원회가 부디 큰 성과를 거두어서 이 위원회가 끝날 때쯤이면 광복할만한 희망이 우리를 앞에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혁신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영·호남을 중심으로 특정 당이 50% 남짓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씹아내면서 지방자치의 병폐를 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은 “지금 절벽 끝에 서 있다. 여전히 국민에게 외면당하는 게 사실로, 내년 지방선거 결과에 우리 당의 명운이 달려있다”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돌아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선거는 자기 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 선거구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의원이 책임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가라운지

장병완 ‘상인조직역량강화’ 광주 9개 시장 선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인 국회의원 장병완 의원은 21일 중소기업부의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에 광주 1913송정역시장, 송정매일시장, 월곡시장(송정5일장), 대인시장, 지산유원지상점가, 건축자재의거리, 자동차의거리, 양동경로리시장, 화정동서부 시장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상인조직역량강화사업은 지역 전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부 전통시장 행정지원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광주는 이번 사업에 신청한 전통시장 9개 전부

가 선정돼 이들 시장에는 조만간 시장 매니저가 배치된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시장의 정부지원 사업계획, 회계관리, 시장 특성에 맞는 활성화 전략 수립, 상인조직력 강화, 국가지원보조금 신청, 정산, 우수사례 발표 보고 등을 수행하며 전통시장 및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이다. 특히 이 사업의 예산은 애초 정부예산에 없었으나 장 위원장이 국회 예결위와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으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





부동산
중개법인

한국토지(주)

광주, 전라 추천물건

담양군 고서면 고읍리 현성업종
조정가



토지 1497평
건물 180평
야외결혼식 매매가 16억

동구 금남로2가 중심상가
경매물건



토지 488평
건물 6008평
감정가 25,143,000,000
최저가 14,100,000,000

【법원 경매/공매】

토지	일반물건
▶화순군 북면 서유리 서유마을인근 잡종지 토지 3473평 감정가 183,000,000 최저가 128,000,000	▶담양군 담양읍 터미널인근 로터리 중심상가 대지 144평 건물 2층 매매가 11억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입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295평 감정가 202,000,000 최저가 202,000,000	▶서구 치평동 세정 아울렛 옆 도로가 중심상가 4층건물 현재 영업 중 토지 133평 건물면적 90평 매매가 23억
▶담양군 용면 용치리 건양마을인근 보전관리지역 마을버스도로점 입야 114000평 감정가 454,000,000 최저가 454,000,000	▶서구 용암동 중심상가 근린시설 토지 400평 건물면적 100평 매매가 17억
▶장성군 장성읍 유림리 유림제인근 보전관리지구 입야 90000평 감정가 522,000,000 최저가 522,000,000	▶서구 치평동 삼성화재 인근 근린시설 현재 영업 중 토지 120평 건물 614평 매매가 38억
	▶서구 치평동 중심상가 삼성화재인근 토지191평 건물 770평 매매가 51억
	▶서구 마북동 도시지역 도시철도공사 뒤편 대지 508평 건물 302평 매매가 38억 조정가
	▶서구 치평동 소각장인근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 377평 타입종 가능 매매가 17억
	▶서구 마북동 상무한신휴플러스아파트 입구 46.2평 매매가 3억
	▶광산군 비아동 주민센터인근 원룸, 창고부지 대지 97.4평 매매가 4억1천만원 조정가
	▶광산군 운남동 우방아파트건너편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162평 매매가 7억5천만원 조정가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366 전 도로점 토지200평 매매가 1억4천
	▶담양군 남면 경산리 전원주택지 1종일반주거지역 무동산지락 토지 456평 3억 조정가능
	▶대양광가는 평당 2만원 강진 신전면 수양리 입야 42000평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 입야 토지 6714평 매매가 3억5천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11필지 자연녹지 택지조성 2540평 5억 5천만원
	▶나주 금천면 오강리 자연녹지 과수원 16000평 4억

010-3070-2147 유 여사

**투자금 100% 보장
부동산매도 매수환영**

010-8559-8905 이용국 팀장